

산림청 "가을철 나무심기 확대 추진"

"다락밭 등 유휴토지와 리기다소나무 벌채·갱신 조림비 등 지원"

산림청 산림자원과에서는 봄철에 전국적으로 16,000여ha에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한데 이어 가을철에도 약 4,000ha에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을철 나무심기 사업은 장기간 놀리고 있는 다락밭 등 유휴토지 조림 100여ha를 비롯하여 산업용으로 벌채·이용이 가능한 리기다소나무림 수확·생태조림 등 산림자원 조성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식목일을 전후한 봄철에 집중된 나무심기 사업을 가을철에 분산하여 추진함으로써 농산촌의 인력난 해소, 용기묘를 비롯한 조림용 묘목의 안정적 수급을 통한 양묘농가의 수입 보전과 일자리 창출 등 임산업의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리기다소나무는 60~70년대 치산녹화기에 황폐된 산림복구와 산업용 원자재 공급 등의 목적으로 대대적인 조림을 한 결과 벌기령에 도달하여 벌채 이용이 가능하고, 푸사리움가지마름병으로 생육이 저조하여 경관상 좋지 않으므로 여름철에 친환경적인 벌채를 하여 펄프·보드 등 산업용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내의 목재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경제성이 높은 수종으로 갱신·조림을 추진합니다.

다락밭 등 유휴토지 조림은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8월 31일까지 실태조사 및 조림 수요조사가 끝나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조림계획을 세워서 본격적인 유휴토지 조림을 지원할 예정이며, 금년 가을철에는 강원도,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5개 지역에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놀고 있는 땅에 나무심기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토지가 있는 시·군(읍면동) 산림부서에 8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리기다소나무 수확·생태조림은 시·군에서 대단위로 모델 사업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사업지 내의 산림 소유자는 해당 시·군에서 대단위로 모델 사업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사업지 내의 산림 소유자는 해당 시군에 벌채·조림신청서(사업 동의서)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림사업비는 다락밭 등 유휴토지에 조림하는 경우는 ha당 최대 386만원을 현금으로 보조하며, 리기다소나무림의 택벌·갱신 조림은 ha당 254만원으로서 전체 사업비의 90%를 국고와 지방비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문의 : 산림청 산림자원과 권영계 사무관(042-481-4185)